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아는대로 진실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2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0월 25일)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방향성 없는 포교전략 장애인 불자 '소멸위기'

위기의 장애인포교 현주소와 과제

㊤ 장애인포교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포교의 대안과 과제

현재 활동중인 단체는 10곳
'장애인복지' 분야 제외하면
5곳 불과…규모 · 활동 쇠퇴

1990년대 창립한 단체들 중
혜광불자회 · 아나율회 해체
다른곳도 사실상 명맥만 유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우려가 깊다. 장애인 포교가 '장애인복지' 혹은 '장애인 신도 관리'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포교전략이 없다면 20년 후 장애인불자는 전멸할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11년 조계종 포교원이 장애인포교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전법단을 창립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장애인포교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모순적이게도 1980~1990년대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심각하게 낮고 편견도 심했던 당시, 장애인불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꾸려 불자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대표적인 장애인포교단체로 손꼽혔던 곳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혜광맹인불자회, 대구지역의 대광맹인불자회, 대전맹학교 불자회였던 아나율회, 부산지역의 부광시각장애인불자회, 청각장애인불자모임인 조계사 원심회 등 5곳이다.

이들 단체들은 1990년대 무렵 각기 왕성한 활동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가 쇠퇴했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혜광맹인불자회와 맹학교 불자회였던 아나율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성기 회원수만 300명을 넘는 등 가장 규모가 컸던 혜광맹인불자회는 2000년대 초 자체적으로 요양원 겸 포교당 건립불사를 진행할 정도로 토대가 굳건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도 크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혜광맹인불자회는 2000년대 초 장애인불자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 강원도 지역에 요양원 겸 포교당 건립불사를 진행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회향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지역에 골프장이 건립되면서 건물을 이전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사기를 당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재정적인 문제로 고충을 겪었다. 단체가 본격적으로 와해되기 시작한 것은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고령으로 잇따라 세연을 접으면서부터다.

혜광불맹인자회에서 활동했던 양만석 거사는 "당시 장애인불자들의 노후에 대한 고민이 워낙 크다보니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불사를 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근거지인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불사를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나율회는 1990년대 대전맹학교 불자회로 창립했지만, 교장이 기독교인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강제 해산됐다. 당시 아나율회와 교류했던 관계자들은 "이후에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 활동을 이어갔지만 구심점이 없어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며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른 단체들은 다행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불교계 포교단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회원 중심의 신행모임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어려운 여건에도 사무실 겸 포교당을 임대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회원수는 300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50여 명 정도. 일일찻집이나 모금활동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기법회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젊은 장애인불자나 신규회원 유입도 간혹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가 적지 않다. 이경림 사무국장은 "비록 임대 이지만 장애인 분들이 단독으로 법회를 할 수 있는 법당과 사무국이 있기에 아직까지 유지가 가능했다"며 "재개발 때문에 법당을 또 이전해야 하는데 항상 재정난에 시달리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전했다.

부광시각장애인불자회는 회원 수는 많지 않지만, 자체공간인 부산 금광명사를 중심으로 지도법사 스님들을 초청해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계사 원심회는 청각장애인불자회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불교수화통역사 양성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 제작 등 지원단체의 성격이 더 크다.

2000년대초 시각장애인모임인 생명사랑아나율회(이후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로 개칭)와 문화포교로 특화된 보리수아래가 창립했으며, 장애인복지 분야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광림사연화원(이사장 해성),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원종), 강북장애인복지관 불자회 바라밀, 영주시장애인복지관 금강회, 성북장애인복지관 불자회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추위도 코로나도 잊은 간절한 기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 오전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부처님 전에 수능수험생의 고득점과 원만회향을 희망하는 촛불공양과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처음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기도현장의 모습도 예년과 달랐다. 법당에 들어갈 수 없는 대중은 대웅전 마당에 모여 방역수칙 속에서 기도에 동참했고, 촛불공양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질서 있게 진행됐다. 쌀쌀한 날씨와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수능수험생을 생각하는 모정불심의 간절한 마음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 불교계 방역 강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강좌' 종무수칙 공지

올해의 불서 등 시상식들 취소
서울지역 사찰 12월 13일까지
법회, 비대면으로 행사는 금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종무기관과 사찰 방역 강화 지침을 시달하는 등 방역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2월 4일 서울 권역 사찰들에게 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법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라"고 공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지침에 따르면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기도를 제외한 사찰 주관 행사, 모임은 모두 중단된다.

사찰 상주대중의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은 중단되며, 가족끼리 참여하는 49재도 공양은 제공되지 않는다. 공용 음수대 운용이 금지됐다.

또한 사찰 상주대중은 기도, 예불 집전 시에도 사찰 내 모든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해 환기하고, 손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에게는 강화된 종무수칙을 11월 27일 공지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강화된 종무수칙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예정됐던 대면행사는 전면 중단된다. 민원실과 불교중앙박물관 운영도 중단되며, 언론사 취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지하공양간의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된다. 또한 종무원들은 시차출퇴근제와 시차점심공양을 시행하며 출근 시 체온을 측정하고 '자가측정 대장'에 체온을 기입해야 한다.

조계종 종단 차원의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각 단체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 혹은 연기하고 있다. 먼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손창동)는 11월 21일 공불련 학술세미나를 긴급 취소했다.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도 12월 4일 예정됐던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취소했으며,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도 이어 12월 11일 개최 예정인 송년의 밤 행사를 취소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도 12월 9일 진행 예정이던 정기총회를 취소하고 방역 지침 준수에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예비역장성불자연합회의 경우 12월 6일 한차례 연기를 통해 약식으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12월 20일로 재차 연기했다.

예불회 관계자는 "한차례 연기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광범위한 확산과 행사 장소에 참여한 대중들의 확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 계속해서 확산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 측도 종단 지침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봉은법회, 신행연등, 풍물 등 사중 모임 중단과 함께 불교대학과 경전학교 등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며, 도서관과 같은 공공 운영 시설도 폐쇄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사찰 내 있을 시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조계종 측은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면서 서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됐다. 이에 종단에서는 서울 지역 사찰 220여 곳을 대상으로 강화된 지침과 코로나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중앙종무기관도 선제적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2021년도 상반기 출가 안내

집중등록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2월 (2021년 가을 수계 대상)
※ 위 등록기간은 출가 후의 가을수계 일정에 맞춘 권장기간이며, 출가는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365일 가능합니다.
※ 은퇴출가자의 경우 위 등록기간에 행자등록 시 2022년 봄 수계 대상자가 됩니다.

대 상
출가의 원력을 세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1971년 12월 31일생까지, 만 13세 ~ 50세 이하)

출가 가능사찰
전국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등록절차
① 전국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중 본인이 원하는 사찰을 선택
②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출가에 대해 상담 후 출가

출가혜택
① 출가 후 생활에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지원
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③ 입원진료비·요양비 지원

소년출가자(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 청년출가자(만19세 이상 만30세 이하) 혜택
①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② 대학원 진학 시 장학 지원
③ 군법사 지원 시 특별 선발
※ '소년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됩니다.

문의 : 02)2011-1801, 1817 / 출가상담전화 : 1666-7987

자세한 사항은 조계종 출가사이트 http://monk.buddhism.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